

“기독교와 인격교육”에 대한 논평

김 선 양

(인하대학교)

오인택 교수의 발표내용은 첫째 교육의 형식 안(內)으로 창조된 인간, 둘째 타락한 인간, 셋째 삶의 단계에 따른 교육, 넷째 기독교적 인격교육의 지평(일), 다섯째 기독교적 인격교육의 지평(문화)등으로 요약된다.

첫째와 둘째는 기독교 교육의 특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로 다른 토의가 있을 수 없다. 다만 셋째 삶의 단계에 따른 교육과 넷째 기독교적 인격의 지평(일) 다섯째 기독교적 인격의 지평(문화)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크레멘스(Clemens)는 초대 기독교의 정통성을 확립한 사람들 중에 아주 중요한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이다. 그의 관심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인류를 편견없는 올바른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일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기독교원리적인 이념을 가지고서 지식인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케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테네에서 나서 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면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회랍철학에 정통한 사람이다. 그는 종래의 철학적 사유가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철학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자신도 인간들이 철학하기를 원한다. 철학의 모든 합리적 사유방법이 결코 인간에게 해로울 수는 없다고 보았다.

유대인들의 율법과 회랍인들의 이성 — 이 둘이 기독교인들은 교육시키는데 없어서는 안될 교육내용이라고 그는 갈파하였다. 하나님이 예술가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것 처럼 철학하는 이들에게도 남과 다른 관찰력과 사고력을 내려주셨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카리스마, 탈란트, 소질을 가지고 음악, 미술, 무용, 조각, 건축, 시문학 등과 더불어 충실히 사색하여 이룩해 놓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수립하는데 오히려 고마운 선물이라고 하였다. 그는 로마서 2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저들의 본성으로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자체가 곧 율법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나아가 기독교 이전의 희랍 철학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으로 살았다면 모두가 다 기독교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이상형은 오인탁교수의 서술대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지런하자”라고 보는 것은 사도 바울, 크레멘스에 이어 발트(Barth), 틸리히(Tillich)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관심사였다. 이에 더하여 오교수는 일하지 않으면 인간이 이미 갖고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본질까지도 변질되고 더 나아가 그 본질까지 상실된다는 것은 크게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이고 뿐만이 아니라 일하지 않음으로서 상실된 능력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들 모두가 크게 음미해야 할 생활윤리가 아닌가 싶다.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일을 즐길 수 있는 능력으로 인간을 교육하는 일은 아주 소중한 것이다.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범죄를 저지를 틈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케르센슈타이너(Kerschensteiner), 페스탈로찌(Pestalozzi)가 모두 노작교육을 강조하였다고 본다. 지금은 극도의 산업사회로 나아가면서 지나치게 직업의 전문화, 세분화에서 오는 통합적 인격형성의 결여를 이 육체적 노동의 교양화로서 통합할 수 있는 계기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평등의 원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나면서 평등, 잠자면서 평등, 이 세상을 떠나면서 평등하다. 이것이 우주의 원리라고 본다.

계층간에 평등, 남녀간의 평등, 성인과 아동·노인과의 평등 이것을 오교수는 기독교적 정치교육으로 표현하였다.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을 것이 아니라 나의 발전이 공동체의 발전에 직접한다는 의식속에 나와 전체, 서로 다른 언어와 지역, 성, 계층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인권의 절대적 동등의 원리, 이것을 오교수는 다양성을 포괄하고 있는 단일성으로 기독교적 인격교육의 틀로 보았다.

오교수는 기독교적 인격교육은 인격의 원칙적 동등성의 원리위에서 상대방의 상이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개방적으로 대화하는 일, 그리고 호소하고 충고하고 말을 던지는 일, 집단적인 것 보다는 개별적으로 양육하는 일, 분석보다는 종합을 우선하는 일, 비판보다는 이해와 용서를 우선하는 일,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나아가는 원근의 교육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한말로 한다면 열린 마음과 태도로서 너와 그를 인정하면서 자연스런 상태에서 서로 이해하고, 삶에 대해 경건하며 또 부지런하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미덕을 몸에 지니고 그속에서 하나님으로 향한 심성을 굳게 믿고 학생들을 인정하는 자유하는 자유교육의 도입을 제의하고 싶다.